

주부들의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및 정보요구도 조사

김규동¹ · 이정윤^{2*}

¹을지대학교 의료산업학부

²을지대학교 식품과학부

A Survey on the Housewives' Purchasing Behavior and Needs for Food Safety Information

Kyu-Dong Kim¹ and Jeung-Yun Lee^{2*}

¹School of Medical Industry and ²School of Food Sciences, Eulji University, Gyeonggi 461-713,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usewives' purchase behavior and needs for information on food safe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5 housewives over the age of 20 living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from March 9 to April 3 in 2009.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checking expiration date' topped with 4.59 in the purchase behavior for food safety followed by 'buying domestics' (4.08) and 'considering food safety' (3.66). The study also showed that only 18.5%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ve an experience of education for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hormones' was the highest with 89.1%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but 'mad cow disease' was the lowest with 25.8%. Also total degree of knowledge for food hazards was an average of 8.56 out of 13. The respondents' degree of information search for food safety was generally low at 2.61 and tv/radio topped the list of information sources with 4.04, followed by newspaper/magazine (3.80), internet (3.44), and family/relatives/friends (3.39). Finally, degree of information needs for food safety was generally high with 3.82. Therefore, government, producers, distributors and academic researchers must provide consumers collective and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food safety and hazards through the diverse information sources. Also they have to play their respective roles in developing and executing feasible education program for consumers.

Key words: food safety, purchase behavior, knowledge,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needs

서 론

WTO 출범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급증한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더불어 중국산 김치에서의 납 검출 및 기생충 알 김치 파동, 농산물의 농약 잔류문제, 식품의 허위표시, 미국·일본에서의 광우병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반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1-3). 소비자들은 식품의 형태를 보고 잔류화학물질이나 세균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생산이나 가공과정에 대한 관심이 식품안전성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4,5).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식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도덕성 결여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의 감시·감독 소홀에도 문제가 있지만 식품을 직접 구입해 소비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과 행동에 더

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가 식품구입 시 안전을 중시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안전한 식품만 선택할 때 시장에는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의식과 행동의 변화 없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은 어렵게 보인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에 있어 안전을 의식한 구매행동으로 식품유통에 변화를 주고 식품제조업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6,7). 이와 같은 식품의 안전성을 의식한 구매행동은 대부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 얻어진 정보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8).

최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은 첫째 잔류농약, 둘째 식품첨가물을 가장 위험하다고 선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위협요소 순서는 이와는 상반된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jy@eulji.ac.kr
Phone: 82-31-740-7128, Fax: 82-31-740-7370

즉 병원성 미생물, 영양과잉, 환경오염물질, 자연독, 잔류농약 및 식품첨가물 순으로 위험성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9). 또한 주부대상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는 정보내용을 다룬 연구에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가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고, 다음으로 유해물질 및 식품첨가물에 관한 정보,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정보, 유통 및 반품에 관한 정보 등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 인식과 건강 위해도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1). 그러므로 식품안전의 문제는 생산자, 소비자, 식품가공업자, 언론, 정부, 학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적인 문제이며 실제적 위협과 소비자의 인지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12).

한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요구는 매우 강한 반면 실제 제공되는 정보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인데(13,14), 소비자의 정보요구란 소비자들이 구매선택과정에서 상품의 품질과 성능을 비교, 판단하고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현재 알고 있는 지식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수준 사이에 느껴지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욕구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15). 따라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초자료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구매행동과 식품안전에 대한 지식, 정보탐색, 정보요구도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올바른 식품구매행동 유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총 400부의 설문지중 329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중 사전검토 및 편집과정을 거쳐 분석에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고 총 2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조사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설문지는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연구(2,13-20)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최초 설문지는 사전조사를 통한 내용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로 작성되었다.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족 수, 그리고 주거형태 등 6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은 Nam과 Kim(2), Park 등(16), Lee(17)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평소 식품구매 시 식품안전과 관련한 행동을 묻는 리커트 5점 척도 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는 Kim과 Kim(13,14,19,20), Lee와 Rhee(15), Kim(18)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 정보탐색, 정보요구도 등의 3개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식은 식품안전 관련 교육경험 유무를 묻는 1개 문항과 식품위해요소들과 관련한 지식을 묻는 13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각 문항별 정답률과 전체 지식점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보탐색은 정보탐색도 리커트 5점 척도 1개 문항과 정보원천 리커트 5점 척도 9개 문항으로, 정보요구도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를 묻는 리커트 5점 척도 1개 문항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으로, 인구통계적 변수별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은 χ^2 -test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구매행동, 정보탐색, 정보요구도 등은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인구통계적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만이 이용되었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이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연령은 40대가 47.3%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25.5%), 30대(19.3%) 등의 순서를 보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4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직장인(26.2%), 자영업자(14.5%), 전문직(14.5%) 등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교졸업자(52.7%)와 대졸자(22.2%)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월평균 가정소득은 350만원 이상 집단이 33.1%로 가장 많았고, 300~349만원 집단(20.7%), 150~199만원 집단(18.0%), 250~299만원 집단(16.4%) 등이 순서대로 많았다. 가족 수에 있어서는 4인이 58.2%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20.0%), 3인(10.9%) 등의 순이었다. 끝으로 주거형태는 아파트 57.8%, 다세대 25.8%, 단독주택 16.4% 등의 순이었다.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

식품구매 시 식품안전과 관련한 행동을 9개 항목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을 고려한 구매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국내산 구입'(4.08), '가격보다 안전을 고려'(3.66),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식품을 구입'(3.55), 그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Age	20's	22	8.0
	30's	53	19.3
	40's	130	47.3
	≥50	70	25.5
Occupation	Full-time housewife	113	41.1
	Public official	4	1.5
	Salaried man	72	26.2
	Self-employed	40	14.5
	Professionals	40	14.5
	Student	6	2.2
Education	≤Middle school	18	6.5
	High school	145	52.7
	College	38	13.8
	University	61	22.2
	Graduate school	13	4.7
Household income (₩10,000)	< 150	24	8.7
	150~199	22	18.0
	200~249	36	13.1
	250~299	45	16.4
	300~349	57	20.7
	≥350	91	33.1
Family size	1	5	1.8
	2	25	9.1
	3	30	10.9
	4	160	58.2
	≥5	55	20.0
Housing pattern	Single family home	45	16.4
	Apartment	159	57.8
	Row house	71	25.8
Total		275	100.0

Table 2. Purchase behavior for food safety

Variables	1	2	3	4	5	6	7	8	9	
Age	20's	4.77±0.53 ¹⁾	3.32±1.09	3.64±0.79	3.82±0.66	3.18±0.85	3.32±0.89	3.23±0.97	2.77±0.69	2.36±0.90 ^{a2)}
	30's	4.57±0.82	3.23±1.15	3.66±1.06	4.04±0.94	3.17±0.98	3.45±0.93	2.91±1.15	2.62±1.00	2.45±0.99 ^{ab}
	40's	4.56±0.74	3.50±1.03	3.59±0.93	4.11±0.93	3.23±0.98	3.55±0.92	3.14±1.02	2.79±0.94	2.88±1.09 ^{bc}
	≥50	4.61±0.67	3.63±1.05	3.79±0.93	4.16±0.91	3.11±0.99	3.70±1.05	2.77±1.02	2.63±1.02	3.04±1.15 ^c
	F-value	0.581	1.626	0.639	0.849	0.225	1.183	2.361	0.665	4.522*
Education	≤Middle school	4.33±0.77	3.17±1.15	4.11±0.96	4.11±1.28	3.28±1.23	3.67±1.08	2.56±1.20 ^{ab}	2.67±1.14	3.22±1.44
	High school	4.54±0.82	3.46±1.12	3.54±0.91	4.08±0.92	3.16±0.98	3.48±0.96	3.10±1.01 ^{bc}	2.75±0.97	2.80±1.12
	College	4.82±0.39	3.68±0.77	3.79±0.78	4.08±0.71	3.11±0.76	3.53±0.83	2.82±0.95 ^{bc}	2.68±0.77	2.82±0.90
	University	4.61±0.64	3.48±1.04	3.72±1.03	4.03±0.91	3.21±1.00	3.62±0.97	3.21±1.05 ^c	2.75±0.98	2.59±1.02
	Graduate school	4.77±0.44	3.23±1.24	3.62±1.12	4.31±0.75	3.46±0.88	3.85±1.14	2.15±1.07 ^a	2.31±0.95	3.15±1.07
F-value	1.876	0.908	1.842	0.246	0.409	0.645	4.364*	0.689	1.586	
Household income (₩10,000)	< 150	4.58±0.78	3.29±1.20	3.71±0.91	4.33±0.82	3.00±1.02	3.83±0.82	3.29±0.86	3.00±1.02	3.08±1.10
	150~199	4.32±1.04	3.41±1.10	3.68±0.99	4.18±0.85	3.00±1.20	3.82±0.96	3.18±1.18	2.68±1.25	2.55±1.26
	200~249	4.61±0.77	3.39±0.99	3.72±0.88	3.86±0.99	3.19±0.89	3.64±0.93	3.08±1.11	2.50±0.88	2.78±1.07
	250~299	4.49±0.73	3.42±1.12	3.44±0.78	4.02±0.81	3.20±0.89	3.40±0.96	2.80±1.06	2.84±0.82	2.78±0.97
	300~349	4.65±0.64	3.58±1.00	3.61±1.08	4.00±0.94	3.07±0.96	3.46±0.96	2.70±1.02	2.61±0.88	2.91±1.11
≥350	4.67±0.63	3.51±1.09	3.75±0.95	4.16±0.93	3.34±0.96	3.51±0.99	3.15±1.03	2.74±0.99	2.74±1.11	
F-value	1.113	0.341	0.695	1.127	0.974	1.197	2.217	1.102	0.745	
Total		4.59±0.72	3.47±1.07	3.66±0.94	4.08±0.91	3.19±0.97	3.55±0.96	3.01±1.05	2.72±0.95	2.80±1.09

¹⁾Mean ± SD.

²⁾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Checking expiration date, 2. Checking food additives, 3. Considering food safety, 4. Buying domestics, 5. Buying organic foods, 6. Buying foods based on the information, 7. Buying foods containing hazards, 8. Buying irradiated foods, 9. Restraining eating out. *p<0.01.

고 '식품첨가물 표시를 확인'(3.47)한다는 응답이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식품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식품도 구입'한다는 응답은 2.72로 낮게 나타나 방사선조사식품 표시가 되어있는 식품은 식품안전을 위해 별로 구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안전문제로 외식을 자제'한다는 응답도 2.80으로 낮게 나타나, 외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식품을

Table 3. Experience of education for food safety

Variables		N (%)	χ ² -value
Age	20's	4 (18.2)	5.704
	30's	5 (9.4)	
	40's	31 (23.8)	
	≥50	11 (15.7)	
Education	≤Middle school	5 (27.8)	1.483
	High school	26 (17.9)	
	College	8 (21.1)	
	University	10 (16.4)	
Graduate school	2 (15.4)		
Household income (₩10,000)	< 150	7 (29.2)	5.978
	150~199	6 (27.3)	
	200~249	4 (11.1)	
	250~299	5 (11.1)	
	300~349	11 (19.3)	
≥350	18 (19.8)		
Total		51 (18.5)	

직접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국내산 식품을 선호 하면서 실제 외식 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유통 기한이나 식품 산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낮거나 덜 불안 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Nam과 Kim(2)의 연구에서 식품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 순서인 ‘유통기한’(86.7%), ‘제조일자와 신선한 정도’(75.4%), ‘국내산’(53.4%), ‘가공 시 식품위

생 품질관리’(41.4%) 등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는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 정보탐색, 정보요구도 등 3개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은 식품안전 관련 교육경험 유무를 묻는 1개 문항과 식품안전 위해요소들과 관련한 지식을 묻

Table 4. Degree of knowledge about each food hazar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ge	20's	15 ¹⁾ (68.2)	19 (86.4)	16 (72.7)	11 (50.0)	15 (68.2)	11 (50.0)	14 (63.6)	17 (77.3)	15 (68.2)	4 (18.2)	13 (59.1)	17 (77.3)	9 (40.9)
	30's	39 (73.6)	40 (75.5)	44 (83.0)	29 (54.7)	45 (84.9)	13 (24.5)	27 (50.9)	41 (77.4)	40 (75.5)	8 (15.1)	45 (84.9)	53 (100)	28 (52.8)
	40's	112 (86.2)	110 (84.6)	106 (81.5)	58 (44.6)	110 (84.9)	42 (32.3)	60 (46.2)	102 (78.5)	110 (84.6)	40 (30.8)	115 (88.5)	119 (91.5)	81 (62.3)
	≥50	61 (87.1)	56 (80.0)	49 (70.0)	20 (28.6)	55 (78.6)	16 (22.9)	38 (54.3)	46 (65.7)	53 (75.7)	19 (27.1)	53 (75.7)	56 (80.0)	39 (55.7)
	χ^2 -value	13.406*	3.086	6.145	12.840*	11.394	13.431*	6.282	10.682	6.077	18.365**	25.120***	28.391***	13.038*
Education	≤Middle school	13 (72.2)	14 (77.8)	9 (50.0)	3 (16.7)	14 (77.8)	2 (11.1)	9 (50.0)	14 (77.8)	13 (72.2)	1 (5.6)	15 (83.3)	14 (77.8)	10 (55.6)
	High school	117 (80.7)	120 (82.8)	113 (77.9)	60 (41.4)	117 (80.7)	45 (31.0)	73 (50.3)	101 (69.7)	109 (75.2)	43 (29.7)	120 (82.8)	129 (89.0)	79 (54.5)
	College	32 (84.2)	30 (78.9)	28 (73.7)	18 (47.4)	30 (78.9)	15 (39.5)	21 (55.3)	31 (81.6)	30 (78.9)	10 (26.3)	33 (86.8)	35 (92.1)	18 (47.4)
	University	53 (86.9)	48 (78.7)	53 (86.9)	28 (45.9)	51 (83.6)	16 (26.2)	29 (47.5)	48 (78.7)	53 (86.9)	15 (24.6)	47 (77.0)	54 (88.5)	41 (67.2)
	Graduate school	12 (92.3)	13 (100)	12 (92.3)	9 (69.2)	13 (100)	4 (30.8)	7 (53.8)	12 (92.3)	13 (100)	2 (15.4)	11 (84.6)	13 (100)	9 (69.2)
χ^2 -value	9.060	7.997	20.585**	10.773	7.148	21.710**	8.127	7.054	9.896	7.274	4.590	6.165	17.995*	
Household income (₩10,000)	<150	20 (83.3)	18 (75.0)	18 (75.0)	13 (54.2)	17 (70.8)	6 (25.0)	10 (41.7)	17 (70.8)	17 (70.8)	5 (20.8)	19 (79.2)	18 (75.0)	13 (54.2)
	150~199	16 (72.7)	16 (72.7)	16 (72.7)	9 (40.9)	18 (81.8)	5 (22.7)	9 (40.9)	16 (72.7)	17 (77.3)	4 (18.2)	17 (77.3)	19 (86.4)	9 (40.9)
	200~249	30 (83.3)	28 (77.8)	27 (75.0)	14 (38.9)	30 (83.3)	11 (30.6)	18 (50.0)	29 (80.6)	28 (77.8)	11 (30.6)	31 (86.1)	34 (94.4)	20 (55.6)
	250~299	31 (68.9)	38 (84.4)	34 (75.6)	21 (46.7)	33 (73.3)	10 (22.2)	22 (48.9)	35 (77.8)	33 (73.3)	17 (37.8)	35 (77.8)	41 (91.1)	23 (51.1)
	300~349	51 (89.5)	48 (84.2)	44 (77.2)	23 (40.4)	50 (87.7)	17 (29.8)	33 (57.9)	38 (66.7)	44 (77.2)	13 (22.8)	49 (86.0)	53 (93.0)	37 (64.9)
	≥350	79 (86.8)	77 (84.6)	76 (83.5)	38 (41.8)	77 (84.6)	33 (36.3)	47 (51.6)	71 (78.0)	79 (86.8)	21 (25.8)	75 (82.4)	80 (87.9)	55 (60.4)
χ^2 -value	16.177	14.186	3.985	2.818	12.846	6.280	2.906	11.899	16.717	11.214	9.235	15.784	6.537	
Total	227 (82.5)	225 (81.8)	215 (78.2)	118 (42.9)	225 (81.8)	82 (29.8)	139 (50.5)	206 (74.9)	218 (79.3)	71 (25.8)	226 (82.2)	245 (89.1)	157 (57.1)	

¹⁾N (%) of correct answer. *p<0.05, **p<0.01, ***p<0.001.

1. Color former is added to meat products such as ham and sausage in order to make them look better.
2. Avian influenza virus become extinct if the food is heated for 5 minutes at 75°C.
3. Food additives do no harm even if they are taken for a long-term period since only the permitted amount is added to food.
4. Even irradiated foods have no problems with food safety.
5. Agrichemicals in food may increase the cancer development.
6. If the food is irradiated, it is harmful due to radioactivity.
7. Healthy people with normal immunity can also be easily infected with avian influenza.
8. Agrichemicals residues may increase the cancer development.
9. Heavy metal accumulated in body through taking food is harmful to the human body.
10. Imported beef of less than 30-month-old is safe from the mad cow disease.
11. Excessive agrichemicals may be used for imported food since it takes longer time to be imported.
12. Environmental hormones may be emitted from the packaging materials.
13. Residual antibiotics in food increases the tolerance to germs in the human body.

는 13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식품안전 관련 교육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5%에 그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인구통계적 변수별로는 교육경험에 있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생물학적 요인은 광우병, 조류독감, 식중독 미생물 등으로 급성적으로 부작용을 가져오는 감염증을 일으킨다. 한편 화학적 위해는 복어 독, 조개 독, 버섯 독, 곰팡이독 등의 자연 독성분과 잔류농약, 환경호르몬, 과량의 식품첨가물, 중금속, 알레르기 발생 물질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를 말하며 또한 식품 가공 및 재배 위해는 유전자 변형 식품, 방사선 조사식품, 생산지 및 원산지 등을 들 수 있다(17). 이에 따라 식품안전 위해요소들과 관련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먼저 각 항목별 정답률을 보면 Table 4에서와 같이, “식품포장재에서 환경호르몬이 방출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한 정답률이 89.1%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30개월 미만 수입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항목에 대한 정답률이 25.8%로 가장 낮았다. 13개 항목 각각에 대해 정답 시 1점을 부여하여 전체 지식점수를 도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은데, 총 13점 만점에 평균 8.56점으로 식품안전 위해요소들과 관련한 조사대상자들의 지식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학력 변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즉 40대(8.96)와 대학원졸 이상(10.00) 집단이 각각 변수 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지식점수를 보였다.

Table 5. Total degree of knowledge for food hazards

	Variables	Mean \pm SD	F-value
Age	20's	8.00 \pm 2.78 ^{a1)}	2.704*
	30's	8.53 \pm 2.10 ^{ab}	
	40's	8.96 \pm 2.38 ^b	
	\geq 50	8.01 \pm 2.72 ^a	
Education	\leq Middle school	7.28 \pm 2.78 ^a	2.596*
	High school	8.46 \pm 2.55 ^{ab}	
	College	8.71 \pm 2.24 ^{bc}	
	University	8.79 \pm 2.40 ^{bc}	
	Graduate school	10.00 \pm 1.23 ^c	
Household income (₩10,000)	<150	7.96 \pm 2.46	1.236
	150~199	7.77 \pm 2.51	
	200~249	8.64 \pm 2.50	
	250~299	8.29 \pm 2.95	
	300~349	8.77 \pm 2.08	
\geq 350	8.88 \pm 2.42		
Total		8.56 \pm 2.48	

¹⁾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은 정보탐색도 1개 문항과 정보원천 9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는데, 먼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정보탐색도는 2.61로 낮게 나타나 평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식품안전을 걱정하기는 하지만 정작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보탐색 활동은 별로 하지 않아서 식품안전에 관한 지식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구통계적 변수별로는 연령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정보탐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원천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은데,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TV/라디오가 4.04로 가장 높았고 신문/잡지(3.80), 인터넷(3.44), 가족/친지/친구(3.39) 등이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에 세미나/포럼(2.11)과 식품제조업자(2.27)의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18)의 연구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입수한다는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이를 인구통계적 변수별로 살펴보면,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수준별 대부분의 집단에서 TV/라디오를 통한 정보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다만 20대와 30대 연령집단, 교육수준 대학원졸 이상 집단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

끝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정보요구

Table 6. Information search for food safety

	Variables	Mean \pm SD	F-value
Age	20's	2.18 \pm 0.85 ^{a1)}	3.922*
	30's	2.42 \pm 0.91 ^{ab}	
	40's	2.68 \pm 0.84 ^b	
	\geq 50	2.79 \pm 0.88 ^b	
Education	\leq Middle school	2.61 \pm 0.78	0.405
	High school	2.57 \pm 0.91	
	College	2.63 \pm 0.71	
	University	2.67 \pm 0.89	
	Graduate school	2.85 \pm 1.07	
Household income (₩10,000)	<150	2.42 \pm 1.06	1.733
	150~199	2.41 \pm 0.67	
	200~249	2.72 \pm 0.85	
	250~299	2.38 \pm 0.94	
	300~349	2.70 \pm 0.82	
\geq 350	2.74 \pm 0.87		
Total		2.61 \pm 0.88	

¹⁾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1$.

Table 7. Information sources for food safety

Variables	Family, relatives, friends	Books	Newspaper, magazine	TV, radio	Internet	Package labeling	Govt. or consumer agency	Manufacturer	Seminar, forums	
Age	20's	3.55±1.10 ¹⁾	2.50±1.01	3.82±0.91	3.82±0.91	4.09±1.02 ^{c2)}	3.05±1.17	2.32±1.21 ^a	1.95±0.72 ^a	2.00±1.02
	30's	3.21±0.95	2.66±0.96	3.62±0.81	3.92±0.85	4.00±0.92 ^c	3.13±1.04	2.26±0.94 ^a	2.06±0.93 ^{ab}	1.91±0.88
	40's	3.32±0.90	2.84±0.98	3.82±0.89	4.06±0.83	3.43±1.10 ^b	3.47±1.01	2.82±1.05 ^b	2.30±1.01 ^{ab}	2.30±1.15
	≥50	3.59±0.96	2.87±0.96	3.89±0.99	4.16±0.91	2.83±1.33 ^a	3.26±1.02	2.89±1.06 ^b	2.49±1.13 ^b	1.96±1.06
	F-value	2.094	1.233	0.920	1.258	13.702 ^{***}	2.095	5.399 ^{***}	2.643 [*]	2.577
Education	≤Middle school	3.61±1.14	2.39±0.98 ^a	3.28±1.23 ^a	4.17±0.62	2.89±1.37 ^a	3.11±1.32	2.83±1.10	3.06±1.26 ^b	1.72±0.96
	High school	3.28±0.95	2.67±0.94 ^{ab}	3.73±0.88 ^{ab}	4.04±0.87	3.23±1.20 ^{ab}	3.30±1.05	2.68±1.10	2.21±1.05 ^a	2.06±1.08
	College	3.68±0.77	3.08±1.02 ^b	4.05±0.70 ^b	4.16±0.89	3.87±0.99 ^{bc}	3.42±0.89	2.92±0.97	2.37±0.82 ^a	2.26±1.06
	University	3.36±0.93	2.97±0.98 ^b	3.93±0.87 ^b	3.95±0.88	3.66±1.17 ^b	3.33±1.03	2.56±1.03	2.18±0.89 ^a	2.21±1.13
	Graduate school	3.46±1.05	2.92±0.86 ^{ab}	3.92±1.04 ^b	3.92±1.04	4.31±0.75 ^c	3.38±1.04	2.62±1.19	2.08±0.86 ^a	2.31±1.03
F-value	1.679	2.790 [*]	2.931 [*]	0.492	5.859 ^{***}	0.291	0.780	3.287 [*]	1.099	
Household income (₩10,000)	<150	3.38±1.01	2.83±0.96 ^{ab}	3.54±1.10 ^a	4.08±0.88	3.25±1.33	3.42±1.06	2.75±1.29	2.21±1.14	2.21±1.22
	150~199	3.45±1.22	2.45±1.10 ^a	3.64±0.90 ^a	4.00±0.98	3.23±1.27	3.55±1.10	2.59±1.14	2.68±1.32	2.23±1.19
	200~249	3.47±1.06	2.47±1.03 ^a	3.72±0.78 ^{ab}	4.06±0.89	3.42±1.20	3.11±0.85	2.75±1.02	2.06±0.89	1.81±0.89
	250~299	3.27±0.81	2.67±0.98 ^{ab}	3.62±1.01 ^a	3.98±0.87	3.47±1.16	3.24±1.00	2.44±1.01	2.29±0.94	2.04±0.90
	300~349	3.14±0.93	2.72±0.86 ^{ab}	3.70±0.82 ^{ab}	3.81±0.83	3.21±1.10	3.33±0.97	2.67±0.95	2.19±0.85	2.18±1.10
	≥350	3.55±0.86	3.08±0.93 ^b	4.09±0.84 ^b	4.21±0.82	3.68±1.22	3.34±1.15	2.81±1.10	2.32±1.05	2.18±1.14
F-value	1.555	3.199 ^{**}	3.025 [*]	1.612	1.425	0.592	0.796	1.185	0.809	
Total	3.39±0.95	2.79±0.97	3.80±0.90	4.04±0.86	3.44±1.20	3.32±1.04	2.69±1.07	2.27±1.01	2.11±1.08	

¹⁾Mean ± SD.

²⁾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Table 8. Information needs for food safety

Variables	Mean ± SD	F-value	
Age	20's	3.55±0.91	0.990
	30's	3.81±0.90	
	40's	3.88±0.79	
	≥50	3.79±0.99	
Education	≤Middle school	3.28±0.96 ^{a1)}	3.064 [*]
	High school	3.83±0.81 ^{bc}	
	College	3.95±0.90 ^{bc}	
	University	3.77±0.96 ^b	
Graduate school	4.31±0.75 ^c		
Household income (₩10,000)	<150	3.83±0.82	1.700
	150~199	3.59±1.01	
	200~249	3.69±0.86	
	250~299	3.62±0.83	
	300~349	3.84±0.84	
≥350	4.00±0.89		
Total	3.82±0.88		

¹⁾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도는 3.82로 높게 나타나 평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수별로는 교육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0.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정보요구도를 보였다. 이는 기존 Kim과 Kim(13,14,19,20)의 연구들과 Lee와 Rhee (15)의 연구에서 보인 높은 정보요구도 결과와 합치되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조사대상 주부들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가 높고 또한 식품안전 위해요소들과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주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입수하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올바른 영양지식의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부 및 관련당국, 언론, 식품산업체, 학자들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식을 소비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주부들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구매행동과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부를 대상으로 2009년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수집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식품안전 관련 구매행동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았고, '국내산 구입'(4.08), '가격보다 안전을 고려'(3.66)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8.5%에 그쳤는데,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관한 항목별 지식수준에 있어 '환경호르몬' 항목은 정답률이 89.1%로 가장 높았고 '광우병' 항목은 25.8%로 가장 낮았으며, 전체 지식수준은 총 13점 만점에 평균 8.56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탐색도는 2.61로 낮게 나타났는데,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원천으로는 TV/라디오가 4.04로 가장 높았고 신문/잡지(3.80), 인터넷(3.44), 가족/친지/친구(3.39) 등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요구도는 3.82로 높게 나타나 평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 제조업자, 가공 및 유통업자 등은 식품안전 및 식품위해요소들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제공해야 하며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정보탐색 활동을 유도하고 식품안전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올바른 식품구매행동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 헌

- Chang DK, Park HJ. 2006. Analysis for consumers food purchase behavior with respect to agrifood safety. *Korean J Agric Manag & Pol* 33: 563-582.
- Nam HJ, Kim YS. 2006. A Survey on perceived food safety in urban residents. *Korean J Food & Nutr* 19: 126-142.
- Bang BH, Kim JK, Yoon WH, Lee GR, Choe GY, Hwang SY, Hwang CH. 2009. *Food hygiene*. Jin Ro Publishing Co., Seoul, Korea. p 14-23.
- Roberts T, Smallwood D. 1991. Data needs to address economic issues in food safety. *Am J Agric Econ* 73: 933-942.
- Yi JY. 2004. Die sicherheit des lebensmittes und die grenzen der regulierung von lebensmittes. *Chung-ang Law Review* 6: 33-57.
- Yi JY. 2005. Zur sicherheit des lebensmittes im erneuerten lebensmittelrecht. *Chung-ang Law Review* 7: 41-61.
- Lee WY. 1997. A study on consumers' behavior relative to food's safety.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GB. 1996. Women consumer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food safety and the factors related to safety concern. *M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YS. 1995.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housewives about safety of food additives. *M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HY, Kim SW. 2005. A study on consumers' information demand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 *J Korean Home Econ* 43: 175-189.
- Kim HC, Kim MR. 2002. Analysis of the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 for food safety: focused on irradiated foods and environmental hormones. *Korean J Dietary Culture* 17: 153-164.
- Choe JS, Chun HK, Hwang DY, Nam HJ. 2005.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 66-74.
- Kim HC, Kim MR. 2003.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 needs towards food hygiene (1): focused on pesticide residues. *J Korean Home Econ* 41: 15-26.
- Kim HC, Kim MR. 2003. Consumers' awarenes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s towards food hygiene (2): focused on foodborne illness. *J Korean Home Econ* 41: 117-128.
- Lee EH, Rhee KC. 1991. A study on consumers information needs and the related factors. *J Korean Home Econ* 29: 159-176.
- Park JY, Choi EH, Choi JH, Shim SK, Park HS, Park KH, Moon HK, Ryu K. 2009. Assessment of consumer's food safety perception and practices. *J Fd Hyg Safety* 24: 1-11.
- Lee SR. 1992. Safety assurance in dietary scheme. Proceedings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Fall Meeting. p 21-39.
- Kim HS. 1998. Farmers' attitude and perception on the food safety. *Suwon University Nonmunjib* 16: 217-227.
- Kim HC, Kim MR. 2004. Consumer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for food safety. *Injenonchong* 19: 1-8.
- Kim HC, Kim MR. 2009. consumers' awareness of the risk elements associated with foods and information search behavior regarding food safety.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 116-129.

(2009년 11월 23일 접수; 2009년 12월 21일 채택)